

## 11. 황혼녘에 이른 ‘노동 대 자본’ 프레임

박세길\_새사연 이사 | newroad2015@naver.com

여러 모로 한국 사회의 틀과 기초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 이후 과거의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의 혁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세계혁명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줄 것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대 담론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루 하루 먹고살기 바쁜 세상에 고색창연한 담론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1980년대처럼 금시라도 세상을 뒤엎을 기세였던 질풍노도 시기도 아니고 말이다. 그런데 어찌하겠는가? 우리가 목을 걸고 있는 해법이 거시적 변화 앞에서 일순간에 고물딱지가 되고 만다면 말이다.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는 시기라면 그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그러한 때이다.

### 프레임 전환과 패러다임 창조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도 자체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 다음이 기대가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직 레토릭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지난 글에서 언급한 5가지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5가지 과제는 성장 동력 확보,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 불균형 해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실업 극복, 세계화 뒤편으로부터 탈출, 불평등 관계의 원천적 해소 등이다. 문재인 정부 사람 중심 경제론은 아직 이 과제들에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와 관련해 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독립적으로 창조되지 않는다.

그것은 프레임 전환과 맞물려 진행되며 새로운 프레임 안에서 낡은 패러다임과의 지난한 투쟁을 거친다. 자연과학 발전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해 온 우주론 진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근대 이후 성립된 최초 우주론 프레임은 지동설 대 천동설이었다. 이전 시기 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천동설이었다. 천동설은 교회가 허락한 유일한 우주론이었다. 지동설이 등장하여 ‘지동설 대 천동설 프레임’을 설정한 것 자체가 혁명의 시작이었다. 프레임 안에 존재하는 지동설과 천동설은 대척점에서 있는 정반대 성격 패러다임이었다. 새 패러다임 지동설은 낡은 패러다임 천동설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지동설 지지자들은 천동설 측으로부터 가해지는 극심한 탄압으로 고난을 겪어야 했다. 지동설은 승리했다. 뉴턴은 지동설 승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혁명적 변화가 그 뒤를 이어졌다. 지동설 대 천동설 프레임은 정반대 성격 두 패러다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절대우주론’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공통 기초로 삼고 있었다. 절대우주론은 속도, 방향, 크기는 일정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인슈타인은 속도는 상대적인 것이며, 중력 영향으로 빛 진행 방향은 휘어질 수 있고, 크기 또한 고정된 게 아니라는 상대성 이론을 제시했다. 새 패러다임인 상대우주론이 출현한 것이다. 그에 따라 ‘상대우주론 대 절대우주론’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성립되었다. 관측 결과 뒷받침을 받으며 상대우주론이 승리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상대우주론 대 절대우주론 프레임조차도 낡은 패러다임을 공통 기초로 삼고 있었다. 우주 밀도는 일정하다고 하는 정상우주론이 그것이다. 여기에 맞서 우주는 한 점에서 폭발해 계속 팽창해 왔다는 팽창우주론이 제기되었다. 새 패러다임 등장과 함께 ‘팽창우주론 대 정상우주론’이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프레임이 성립되었다. 팽창우주론과 정상우주론 사이에 지난한 투쟁이 이어졌다. 결국 허블 등의 관측 결과 뒷받침을 받으며 팽창우주론이 승리했다.

우주론 진화 과정은 프레임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세 가지 규칙을 알려준다. 첫째 패러다임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프레임 안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이 대항 관계를 형성하며 존재한다. 둘째 프레임 안에서 새 패러다임과 낡은 패러다임 사이에 지난한 투쟁이 전개되고 최종적으로 새 패러다임이 승리한다. 셋째 기존 프레임 공통 기초가 낡은 패러다임임이 드러나고 새 패러다임이 출현하면 프레임 교체가 일어난다.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다.

## 노동 대 자본 프레임 성립

우주론 진화 과정에서 확인된 프레임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 관계는 사회 역사에서도 발견된다. 근대 이후 모든 것을 규정했던 본원적 프레임은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이었다. 이 프레임은 선형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 특정 개인 작품도 아니고 어느 한 사건 결과물도 아니었다.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지난한 투쟁을 거쳐 형성된 역사적 성취였다.

19세기가 지나기까지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실체를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

다. 노동자를 동등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도 대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는 선거권 피선거권조차도 주지 않았다. 노동자는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노동력을 지닌 상품이었고, 언제든지 투입 가능한 자본 일부였을 뿐이다. 그러한 자본가 계급 사고 속에 노동을 대등한 축으로 인정하는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이 자리 잡을 여지는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은 오직 노동자들만이 만들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다. 노동자들 투쟁은 다양한 나라에게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영국 노동자들은 참정권 확보를 위한 차티스트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19세기에 가장 처절하면서도 자기희생적으로 투쟁한 곳은 단연 프랑스 노동자들이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1879년부터 장장 25년 간 지속된 프랑스대혁명을 거치며 강한 혁명적 열정을 품기에 이르렀다. 노동자들은 대혁명 기간 동안 역사 무대 중앙에 진출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경험은 너무도 강렬해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은 채 노동자들 심장을 끊임없이 달구었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혁명성은 유럽 대륙을 뒤흔들었던 '1848년 혁명'을 통해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2월혁명을 통해 1948년 혁명 도화선 역할을 한 것도 프랑스 노동자들이었다. 수천 명이 희생된 6월봉기를 통해 1948년 혁명을 극적으로 마무리한 것도 역시 프랑스 노동자들이었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혁명적 열기는 1871년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파리 코뮌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재 3회 '노동자 계급의 진출과 마르크스주의'를 참조하기 바람)

엄청난 희생을 수반하면서까지 노동자들 투쟁이 반복되자 부르주아 계급은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싫든 좋든 노동자 계급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파국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뒤를 이었다. 노동자 참정권이 점차로 확대되어 갔고 합법적인 노동자 계급 정당 결성도 가능해졌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노동자 계급은 새로운 정치적 실체로 부상했다. 그에 따라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이 확고해졌다. 노동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를 흘린 대가로 어렵사리 얻어진 결과였다.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을 사상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탁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서 카를 마르크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 이론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곳곳에서 이론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노동 대 자본 프레임 형성에서 그가 기여한 부분만큼은 충분히 평가해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마르크스는 노동자들 자신이 역사 발전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는 사상 이론적 무기를 제공했다.

노동 대 자본 프레임 성립은 일련의 혁명 결과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혁명의 출발점이었다.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은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굴종했던 수많은 사람들 상상력을 한껏 고양시켰다. 자신들 앞에 던져져 있던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게 했고, 새로운 사회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자극했다. 새로운 프레임 확립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했다.

## 네 가지 사회 모델의 탄생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은 근대 이후 모든 것을 규정하는 지위를 갖기에 이르렀다. 본원적 프레임으로서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은 또 다른 두 가지 프레임을 파생시켰다. 마르크스주의 영향으로 노동자 계급 사이에 공장 등 생산수단을 집단 소유로 전환시키자는 급진적 사고가 확산되었다. 자본 측이 추구하는 개인 소유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그에 따라 공유(집단 소유) 대 사유(개인 소유)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노동자 계급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면 국가 기구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통제 혹은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자본 측은 국가 개입 없이 시장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자유방임을 추구했다. 그로부터 국가 대 시장(방임) 프레임이 성립했다.

노동 대 자본, 공유 대 사유, 국가 대 시장 세 가지 프레임은 각각 두 개씩 모두 여섯 개 패러다임을 품고 있다. 이 여섯 개 패러다임은 다양한 조합을 이루면서 상이한 사회 모델을 창조했다. 크게 보면 네 가지였다. 자본, 사유, 시장 패러다임이 결합하여 신자유주의를 포괄하는 시장자본주의 흐름을 창출했다. 노동, 공유, 국가 패러다임이 결합하여 소련 식 국가사회주의 모델을 탄생시켰다. 자본, 사유, 국가 패러다임이 결합하여 복지 국가 형태의 국가자본주의를 낳았다. 노동, 공유, 시장 패러다임이 결합하여 중국 식 시장사회주의 모델을 출현시켰다.

만약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오직 시장자본주의만이 지구를 지배했을 것이다.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시장사회주의라는 전혀 새로운 모델이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노동 대 자본 프레임 덕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이 어느 정도 창조적 기능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근대 이후 사회 모델에 대한 관념은 대부분 시장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시장사회주의 등 네 가지를 기본으로 탄생한 것이다. 보다 다채로운 사회 모델이 선보였더라도 그 변형이거나 절충이었을 뿐이다. 이 중에서 시장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주목해 보자. 세 가지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6가지 패러다임 중에서 시장자본주의는 모두 오른 쪽에 위치한 자본, 사유, 시장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완전 오른쪽으로 치우친 모델이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소련 국가사회주의는 모두 왼쪽에 위치한 노동, 공유, 국가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완전 왼쪽으로 치우친 모델임을 알 수 있다.

두 모델 모두 붕괴했거나 몰락했다. 이 결과와 각각의 패러다임 조합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는 사실 사이에 깊은 함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패러다임 조합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극단으로 치달은 가능성이 크다. 실제 두 모델 모두 국가와 시장 기능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극단주의였다.

국가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 몰락은 바람직한 사회 모델이 되자면 최소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첫째 시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의 적절한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둘째 자본 이윤 추구하고 축적은 어떤 형태로든지 용인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자본은 손님답게 굴도록 규제해야 한다.

복지 국가로 표현된 국가자본주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루 충족시켰다. 덕분에 역사상 가장 성공한 모델로 기록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지 국가 또한 5가지 과제 앞에 무기력해지면서 수명이 다해 가고 있다. 과연 이 현상과 노동 대

자본 프레임 운명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 불가피해지는 프레임 전환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은 노동의 주도성과 자본축적 중심 경제 운영이 고차원적 수준에서 변증법적 통일을 이룬 결과였다.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은 노동의 주도성이 발휘됨으로써 성립될 수 있었다. 그 안에서 태동한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시장사회주의 등 시장자본주의를 제외한 세 가지 모델 모두 노동 주도성이 관철됨으로써 가능했다. 반대로 시장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시장사회주의 등은 형태는 좀 다르지만 자본축적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했다. 예외적으로 국가사회주의는 자본축적 과정 자체를 배제했다. 하지만 성장 동력 확보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사회주의는 자본축적 중심 경제 운영 불가피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자본 축적 중심 경제 운영은 노동 대 자본 프레임 공통 기초였다.

그런데 노동 대 자본 중심 프레임을 떠받쳐 온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2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노동의 주류를 이룬 것은 근육 에너지 지출로서 육체노동이었다. 생산 확대에 비례해 고용이 늘면서 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했다. 마침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은 기계 부속품으로 전락하면서 단순화되고 표준화되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기가 좋아졌다. 단결이 용이해지면서 산별노조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노동의 주도성이 발휘될 적절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3차 산업혁명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통적 의미에서 노동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반면에 지식 등을 기반으로 한 창조작업 비중이 커졌다. 창조작업 종사자들 특성은 이전 시기 노동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동일성보다는 각자에 체화된 고유성이 더욱 중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산별 노조 기반이 갈수록 축소되었고, 노동계 영향력도 약화되어 갔다. 노동의 주도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자본 축적 중심 경제 운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황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지만, 요즘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큰 물고기는 보다 규모가 큰 기업을 말한다. 큰 규모는 지속적인 자본 축적 결과이며 규모가 클수록 지배력이 강했다. 과거에는 자본축적이 안정적인 성장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었음을 말해 준다. 빠른 물고기는 사람들 요구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능력을 지닌 기업을 가리킨다. 그런 능력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속에 축적되며 그 사람들을 구성된 기업들이 시장 판도를 좌우한다. 반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느릴 가능성이 크다. 자본축적 결과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자본축적이 안정적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여지가 적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축적 중심 경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남은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 출현 가능성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출현을 촉진하고 있는 것 역시 3차 산업혁명이다. 미리 밝히자면 그것은 사람 중심 경제이다. 기존 프레임을 떠받친 공통 기초가 수명이 다해가는 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한다면 프레임 전환은 불가피해진다. 기존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이 사람 중심 대 자본 중심 프레임으로 전환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전통적인 진보 세계 사유는 대부분 노동 대 자본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졌다. 소련 국가사회주의자, 복지 국가를 추구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 심지어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었던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진보적 성향을 띠었다 하면 경향적으로 노동 대 자본 프레임 안에서 사고했다.

여전히 진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케인스주의 이론이나 복지 국가 역시 노동 대 자본 프레임 위에서 작동한 것들이다. 현재 전 세계 진보 안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혁신적 모색도 이 프레임을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진보 세계에서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은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도 자연 질서처럼 느껴져 왔다.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은 (생태주의 흐름을 논외로 친다면) 근대 이후 진보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의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기준, 틀, 해법 심지어 언어까지도 달라진다. 다음에 이어 다룰 주제이다. 